

연등회 연등행렬 선두 등단의 사천왕등. 비가 오는 와중에도 서울 종로 일원을 여법하게 장엄했다.

‘감로 꽃비’ 따라 넘실넘실 흐르네













연등회 동참 세계인들 “한국의 멋 모두 담겨”

5월 11일 연등행렬을 지켜보는 외국인들은 “신기한 경험”이라며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에서 온 샤롯 씨는 연등 하나 하나를 사진으로 간직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샤롯 씨는 “다채로운 연등과 아름다운 의상, 활기찬 율동을 보니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했을지 상상이 된다”면서 “유네스코 문화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넘게 문화를 이어가며 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감동을 전했다.

연신 “원더풀”을 외치던 영국인 빅토리아 씨는 “한국을 여행하며 느꼈던 다양한 한국의 멋이 연등행렬에 모두 담겨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뿜어 나오는 활기와 역동성,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색채, 아름다운 밤거리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쏟아져 숙소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 나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며 “숙소로 돌아가 연등행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K-pop에 푹 빠진 딸들과 2주째 한국을 여행 중이라는 미국인 소마 씨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페스티벌을 경험했지만 가슴이 뭉클한 느낌은 처음”이라며 “연등에서 나오는 우아하면서 빛깔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난다. 신기한 경험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 하면 그저 엄숙하고 진지한 종교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웃고 떠들고 몸을 흔들며 즐기면서도 메시지와 품격이 있었다”면서 “이것이 한국불교가 가진 힘일까?”라고 감동을 전했다.

이틀 후면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다는 프랑스인 파비앙 씨는 “연등회에 맞춰 한국 여행 일정을 짠 내 자신을 칭찬한다”면서 “한국을 떠나고 다음날이 부처님오신날이라고 들었는데, 하루 먼저 떠나는 게 아쉬울 지경”이라며 웃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실 정암 세연

회주 학농 장윤 주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